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54. 두 증인 사건.

2014. 01. 12.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계시록 10장까지 공부했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을 들으시느라 애청자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해를 맞아서 여전히 계시록의 남은 부분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이 새해도 애청하시기 바라고 깨닫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작년 마지막 시간에 성전을 측량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끝났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1:1~6]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4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5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되다.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성소정결 문제가 지구정결이 아니고 하늘성소봉사와 관련되어서 작은 뿔의 정체를 드러내는 예수 재림 전 심판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단들이 하늘성소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분명히 성전을 측량하라고 했네요.

답: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성전 밖 마당을 이방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계시적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밖 마당이라고 했는데, 다음은 그것을 거룩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성경구절을 봅시다.

[계11:2]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 밖 마당이 곧 거룩한 성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표상적으로 성전 밖 마당이라고 했는데 그것의 실상은 거룩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에 이 거룩한 성이 무엇이라고 특별히 해석한 곳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한글 성경에 거룩한 성이라는

말은 신구약 합해서 12번 나타나는데 대부분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11:2 외에 세 번 나타나는데 모두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마흔두 달 동안 짓밟습니다. 이 마흔두 달은 한 때 두 때 반 때, 또는 1260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대하여 계시록에 다섯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했지요. 그 기간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기간입니다. 11장 3절부터 나온 기록은 두 선지자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기간입니다. 베옷은 상복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슬픔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이 증인이 누구인지는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슬픔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자청하고 있는 것을 슬퍼하며 회개하라고 부르짖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환난으로 슬픔에 빠진 모습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나타나는 것도 다 환난과 관계된 기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전 밖 마당, 곧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진리 교회가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 2. 왜 이방인이 교회를 짓밟습니까?

답: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이들은 성전 마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주장하고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땅에 던져서 짓밟는 존재이지요. 오늘 시작하면서 말한 대로 교회를 변질시키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7.8장을 보면 이것은 작은 뿔인데 성소를 헐고 진리를 땅에 던집니다. 한 번 읽어봅시다.

[단8:9~12]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작은 뿔이 성소를 헐었지요. 즉 성소에 대하여 연구할 수 없게 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자세히 이야기했고 아마 지난 시간에도 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성소에 대하여 연구할 수 없게 했고, 진리를 땅에 던졌습니다. 땅에 던지면 짓밟히게 되지요. 13절을 읽으면 성소가 짓밟히게 되는데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단8:13]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여기에 분명히 성소와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런데 계11:2에 이방인이 성전 밖 마당을 짓밟는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그것이 또 거룩한 성입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진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말했듯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변질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짓밟기 때문에 변질이 생긴 것입니다. 자그마치 1260년을 그렇게 했는데, 진리를 땅에 던지려면 일반 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치밀하게 조직되었고, 조직이 교회를 지배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미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또 셋째 인, 넷째 인, 그리고 셋째 나팔, 넷째 나팔로 게시해준 그 햇불처럼 타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인하여 생긴 사건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는 베옷을 입고 예언하고 진리교회는 짓밟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을 10장 끝에 말씀해주셨고, 11장에 들어와서 그것을 원인부터 상징적 장면으로 게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3. 예,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성전 바깥마당은 거룩한 성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교회를 뜻하는 것이 되는군요?(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당이 짓밟히는 기간과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선지자가 예언하는 기간이 동일한 기간인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며, 그 두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다시 예언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까?

답: 이제 그 말씀을 살펴봐야 하겠지요. 먼저 말씀을 읽고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계11:3~6]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굶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4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5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은 베옷을 입고 1260일간 예언합니다. 이 기간에 대하여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좀더 이야기해야 할는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이 두 증인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인이 사람일까요? 이 증인은 1260일간 예언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3년 반이라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부터 수차례 살펴본 대로 상징적 예언에서 1일은 실제적 연대로는 1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260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될 수 없지요. 한 사람의 수명이 1260년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증인도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진리가 짓밟힌 기간입니다. 두 증인은 이것을 슬퍼하며 또한 진리를 짓밟는 존재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베옷을 입은 것을 슬픔을 당한 것을 나타내는 그것은 두 경우라고 했지요. 핍박으로 슬픔을 겪는 것과 죄를 보고 슬퍼하며 회개하라고 호소하는 경우라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 모두라고 했습니다. 진리와 진리교회가 1260년간 짓밟히고 있는 동안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성으로 표상된 진리의 백성들의 고난을 슬퍼하며 그런 고난을 주는 세력에게 회개를 호소한 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 증인을 설명하면서 4절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한 번

읽어봅시다.

[속4:1~6, 11~14]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2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3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4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5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6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11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12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 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13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14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 말씀은 계11:4절의 내용과 같지요. 그래서 계시록의 이 말씀은 스가랴서의 이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으로 성경을 풀이하는 길이지요. 이 말씀에 의하면 두 감람나무는 등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라고 번역한 말은 “루크니아”인데 등대라는 말입니다. 스가랴서와 같이 등대에 불이 계속 타 오르도록 기름을 공급하는 것은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와 등대는 둘인데, 1260년 동안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스가랴서에는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은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 곧 성령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등대로 기름을 보내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서 있으면서 슬프게 증거하는 두 증인, 그것도 126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증거한 두 증인을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4. 확실히 그러네요. 그럼 무엇입니까? 사람이 1260년을 살면서 빛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어떤 상징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답: 그렇지요. 성경에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무엇을 등불이라고 했는지 찾아보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봅시다.

[시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리고 침례요한도 등불이라고 했습니다.(요5:35) 그러나 여기 말하는 등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두 증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인의 소임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경은 그냥 종이에 글을 써 놓은 책일 뿐입니다. 즉 생명이

없는 보통 책이라는 말이고 그냥 고대 문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성경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산 말씀이고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고전2:10~14을 읽어봅시다.

[고전2:10~14]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1260년이라는 긴 세월, 즉 불타는 햇불처럼 땅에 내려와서 암흑시대를 만든 그 긴 기간 동안 성령의 역사로 구약과 신약이 계속적으로 진리를 증거할 것이라는 계시입니다. 과연 강과 샘물을 쭉이 되게 한 그 시대, 해와 달과 별과 낮과 밤을 암흑시대로 만든 그 시대, 셋째와 넷째 나팔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계속 증거했습니다. 푸른 풀과 수목으로 표상된 진리의 백성들을 통하여 성경은 증인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5.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물이 피가 되게 하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경에 모세와 엘리야가 행한 표적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가 이 시대에 특별히 내려와서 일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답: 목사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여기 기록된 행사는 분명 모세와 엘리야가 행한 표적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알 수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할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계시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행한 그 같은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변화산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을 격려하고 또 십자가로 구원사업을 성취한 후에 구원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에 십자가와 재림의 증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벧후1:16~18) 그러니까 여기 증인으로 봉사하는 것과는 다른 기능입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겠다고 약속도 하셨지요.(말4:5,6)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라기에 예언한 그 엘리야가 침례요한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마17:12,13]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도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침례요한이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분명하지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그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다시 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그 엘리야가 아합왕 시대에 활동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활동하기 위하여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침례요한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11장이 진행되는 역사적 시점에 그 엘리야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요한 같은 어떤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이 오면 126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증거할 수 없지요. 그리고 성경에서 모세나 엘리야를 상징적으로도 감람나무나 촛대로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로 피가 되게 하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불이 내려서 원수를 소멸하게 한 것은 모세나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해를 당한 사람들은 그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지 인간 모세나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상징적으로 보여준 두 증인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벧전1:23, 히4:12) 이 말씀은 암흑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서 슬픔 중에 진리를 증거한 것입니다.

6. 그러면 여기 기록한 대로 증인을 해하려고 할 때에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답: 성경구절을 읽고 이야기 합시다.

[계11:5,6]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에 국한 된 말씀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당할 재앙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불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비의 은혜, 즉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룬 비와 늦은 비로 상징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생명을 유지시키는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1260년간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교회라는 조직이 진리를 땅에 던져서 온 세상을 암흑시대로 몰아넣고 사람들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여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여기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 말씀은 그 시대 역사에서 영적으로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후유증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 조직은 아직도 교인들이 성경을 직접 연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풀이는 오직 교회에 있다고 교회가 독점하고 있고, 그렇게 풀이한 것을 가르치는 대로 인정하고 받아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합니다. 결과는 불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말씀이 전하는 그대로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서 진리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7. 그렇군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의 상징적 표현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애청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바르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도 이것이 성경적으로 바른지를 거듭 확인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진리의 백성이 되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광중에 맞이하는 무리들 중에 있도록 복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로 믿음으로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